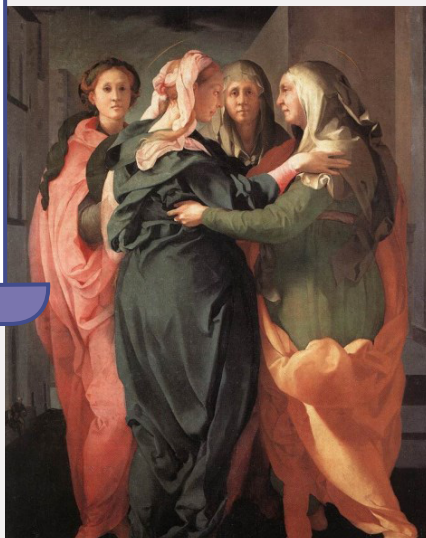




NO.2168

하늘 마음



야코포 폰토르모의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미카 5,1-4

화답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운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운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히브 10,5-1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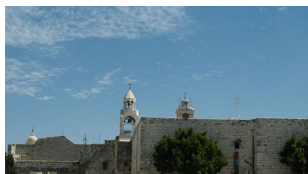
사회사목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Church of the Nativity)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을 넘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 믿었던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왕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합한 후에 다윗의 별을 유대 왕의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별은 조상의 얼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어 구약시대 때부터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는 ‘빵의 집’, 아랍어로는 ‘푸줏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9860185>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의 명령에 따라 처음 건축되었습니다.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 탄생 동굴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2세기 로마 군인들이 이 동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리스도교 말살 정책으로 예수님 탄생 동굴 위에 로마의 아도니스 신(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년 사냥꾼)을 위한 신전을 세웠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헬레나 황후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동굴에 있던 우상의 잔재를 정리하고 예수님 탄생 동굴을 보존하기 위해 성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고대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은 언덕에 굴을 파고 살았으며, 바위 동굴을 마구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당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전해지는 동굴 위에 세워졌으며, 33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초기 성당은 6세기 사마리아인 반란 때 파괴되었지만,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황제는 기존의 성당을 더 크고 웅장한 규모로 확장했으며, 이때의 건축물이 오늘날 성당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이슬람 칼리프 하킴에 의해 파괴 명령이 있었지만, 성당은 파괴되지 않고 비교적 원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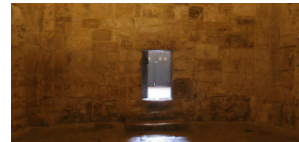


성당은 초기 그리스도교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실리카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홀 형태로, 두 줄의 기둥이 중앙 본당과 양측 통로를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세로로 긴 구조를 가지며, 44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중앙 홀을 지탱합니다. 기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당의 중심에는 ‘예수님 탄생 동굴’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전해지며, 그 위치는 ‘예수님 탄생 별’이라 불리는 은색의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별은 14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십자가의 길 14처를 나타내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시대까지 14대,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구유에 누이셨기에,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거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지 | 출처: 새 사제 성지 순례 (서울교구 2009년 사제서품반)



성당 문 | 출처 - 새 사제 성지순례 (서울교구 2009년 사제서품반)

성당의 입구는 ‘겸손의 문’이라 불리며, 매우 낮고 좁은 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문은 침략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순례자들이 성당에 들어갈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당은 복잡한 소유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각 교단이 성당의 특정 구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관리 체계는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에 확립된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교단은 각자의 전례를 자유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때때로 성당 관리나 보수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당의 보수작업을 둘러싼 분쟁은 2002년 세계 문화유산 지정 시 유네스코의 개입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복원 작업**은 그리스 정교회,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 교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성당의 지붕, 벽화, 기둥 등 주요 구조를 보수하고 복원하였습니다.

성당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의 시작을 알리며, 성당은 그 사건이 일어난 물리적 장소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성탄절 기간에는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성당은 또한 중세 그리스도교 역사와 관련된 여러 전설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에 성당은 중요한 요새로 사용되었고, 오스만 제국 시기에는 여러 차례 점령과 약탈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성당이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과 권력, 문화의 충돌과 변화의 현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당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성당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주변의 치안과 접근성 문제는 성지 순례와 관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정세와 국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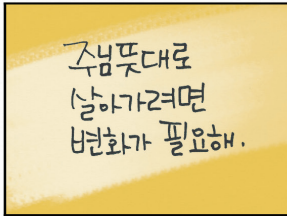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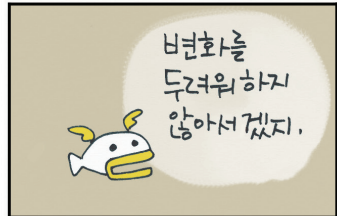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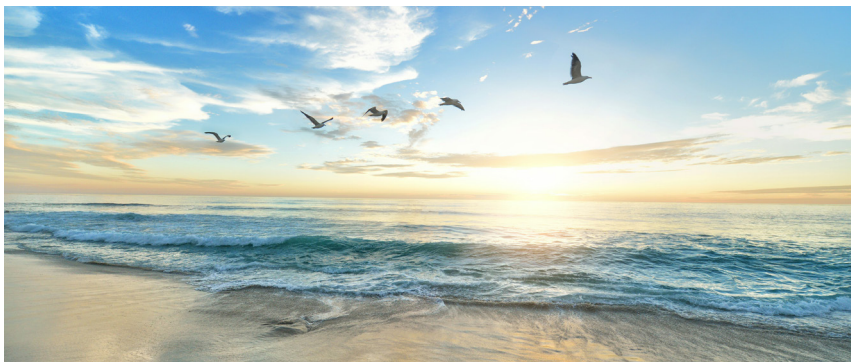




죽어가는 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바다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합니다. 지구 생명이 유지되는 데에 있어서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바다는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량을 해양이 흡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심해층은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소로 꼽히며 땅의 토목, 토양, 미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Freepik

또한,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줍니다.** 바다는 같은 부피의 대기보다 1,000배 이상 많은 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바다는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며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바다에는 육상보다 많은 양의 생물이 모여 거대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속에서 인간은 식량, 자원, 에너지 등 대체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다에 **최근 오염이 심해지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어업과 심해 채굴, 기름 유출, 해양 쓰레기 등으로 바다가 오염되며 탄소 포집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온도 조절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의 수온이 올라가며 해조류가 죽고 바다 밑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수가 줄어가는 **바다 사막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조와 생물들을 동시에 감소시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고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아파하는 바다를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다루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조금씩 우리의 바다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자리

2024년 12월 22일 | 대림 제4주일

(루카 1,39-45)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43)

새겨보기

오늘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엘리사벳의 기쁨과 축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겸손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성령으로 가득 차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세례자 요한이 기쁨으로 뛰는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과 감격을 상징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구원 계획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 옷과 나누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2016년 3월 12일 프란치스코 일반 allocution)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